

중학생의 動的 家族畵(KFD)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이영석 · 최외선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動的 家族畵(Kinetic Family Drawing : KFD)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나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미술기법으로써 일종의 투사적 진단 자료이다. 이것은 Burns와 Kaufman (1970)이 소개한 이후로 특히 가족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동적 가족화에 의한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두었다. 즉, 자아개념과 관련되는 동적 가족화의 특성변인들을 찾아 내는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림을 진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시내 남녀 중학생 527명이며,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KFD반응특성은, 가족들이 대체로 비활동적이며, 의사소통이나 협동성이 적고 보다 독립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2. KFD 반응특성에서의 남녀 차이는, 남학생은 인물상이 보다 활동적이었고, 여학생들은 보다 협동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부모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긴장감이 있는 표현이 더 많았다.
3. KFD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협동적인 경우, 그리고 자기애의 표현이나 양육성을 보인 경우가 모두 긍정적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있었다.

핵심어 : 동적 가족화(KFD) · 행위차원 · 역동성차원 · 양식차원 · 자아개념

자녀는 가족이라는 체계내에서 최초의 사회화를 시작한다. 그들은 가족들이 그를 정의하는 바에 따라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즉, 가족의 이념, 가치, 그리고 역할기대를 습득하게 됨에 따라 인성이 발달되고 통합된다(Bugess, 1971). 이렇게

형성된 자아개념은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식, 태도,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개념은 그가 속해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써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여 주체적인 자아의식 또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하는 발달과업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어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이유하려는 욕구가 썩트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적 의존성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 하는 양가적 감정상태에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질문에 의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많이 사용해 왔다. 그 반면 비언어적인 그림에 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림은 투사적이며 보다 내면의 욕구가 표현된다는 점과 그리고 특히 가족간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저항없이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지각을 동적 가족화(KFD)에 의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KFD는 그러한 투사적 검사의 일종으로 묘화자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가족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어(Burns과 Kaufman(1970, 1972, 1982) 인물화가 가지는 개인의 성격 특성 뿐 아니라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KFD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몇 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KFD를 상담이나 치료에 준거적 자료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규준적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변인들을 찾아내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그린 동적 가족화에 의한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두었다. 즉, 자아개념과 관련되는 동적 가족화의 변인들을 찾아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KFD 반응특성을 행위 차원, 역동

성 차원, 양식 차원에서 알아본다.

2) 성별에 따른 KFD 반응특성을 알아본다.

3) KFD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이론적 배경

1.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 KFD)

동적 가족화(KFD : Kinetic Family Drawing)는 가족화(Drawing A Family)에 움직임을 첨가한 일종의 투사화이다. Burns 과 Kaufman(1970)은 아동의 정서적인 문제가 대부분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가족역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Hulse(1951)의 가족화 검사에 운동성을 부여하여 동적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 Test)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12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아동의 그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동적 가족화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행위, 인물상의 특징, 역동성, 상징, 양식으로 나누고 그 임상적 의미를 보고하였다. KFD는 주제통각검사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인물화(DAP)가 가지는 상동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있다(김동연, 1991). 따라서 연령순이자 사회적 지위순으로 그리는 DAP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투사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KFD는 정신분석학과 場이론, 지각의 선택성 등과 같은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묘화자(描畵者)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 생활 태도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묘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이러한 판단은 묘화자의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객관적,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인지라기보다 자신이 주체적,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인지가 적용되는

것이다. 가족치료의 입장에서 볼 때, 동적 가족화의 도입은 의식적, 무의식적 투사기법으로써 내담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권기덕 등, 1993).

KFD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뢰성 있는 채점법의 개발(Rosenzweig 과 Porter, 1976)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이 이 방법에 대한 타당도와 객관도(McGregor, 1978; Cho, 1987; Conant, 1988; Shaw, 1989; Lieberman, 1992)를 연구하였고, 한국에서도 몇몇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결손가정(Jonston, 1975)에서, 청소년 비행(Sobel 과 Sobel, 1976), 정서장애아동(Heineman, 1975), 아동학대(Schorstein, 1977), 효과적인 양육적 가정의 식별(Brown, 1977), 흑인 국민학생의 자아개념과 KFD와의 관련성의 증명(Shaw, 1989), 가족환경과 부모양육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Lieberman, 1992)하는 연구에서 그 타당성과 객관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KFD의 발달적인 기준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다. MacNaughton(1974)은 4-5세의 아이들로부터 받은 KFD에서 이들은 가족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릴 의사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Knoff와 Prout, 1988), 이들은 어머니를 중요하게 묘사하였다.

Tompson(1972)은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의 KFD에서 남학생들은 더욱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건설적인 행위는 어머니 상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많은 연구논문과 보고서에서 KFD가 다른 문화에서도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加藤 등(1978, 1979), 日比(1985)는 일본에서의 KFD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했으며, Souza(1976)는 브라질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적인 유용성을, Landmark(1975)는 노르웨이에서, Roth와 Huber(1979)는 독일에서, Cho(1987)은 대만에서 KFD의 유용성을 연구하였다. KFD 연구는 위의

여러 국가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기술은 임상학적으로 유용하고 전도 유망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KFD에 대한 컴퓨터 접근법은 O'Brien과 Patton(1974)이 KFD 연구를 할 때 사용되었다. 그들은 중산층 아동을 대상으로 29개의 변인을 지정하여 Coopersmith의 자아궁정감(SEI)과 아동용 불안척도(CMAS)로 구성된 질문지와 함께 컴퓨터에 의한 산술적인 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Burns 등(1982)은 24개 변인에 대해 채점화를 실시하여 해석적 기준을 세웠다.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양익홍(1984)이 정상 아동과 정서장애아동의 동적 가족화를 요인분석한 결과 상징화 및 양식 변인, 정적 변인, 운동성 변인으로 나누고 이들 변인들이 정서적 고립감과 애정욕구, 정서적 부적절감이나 갈등, 가족으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과 배척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강연옥 등(1985)은 국민학생의 KFD에서 26개의 변인 중 21개 변인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박혜련(1992)의 연구에서는 행동장애 청소년들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대상을 KFD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갈등 대상이나 자신을 그림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이영석(1994)의 연구에서도 동적 가족화에 의한 청소년들의 가족지각 특성을 밝혔는데 성별과 가족 형태, 가족응집성, 가족체계, 가족적응성,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최외선(1995)은 KFD상에서 한국의 어린이는 미국의 어린이보다 아버지를 가장 우월한 자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부모간의 거리나 자기상과 부모상과의 거리가 미국의 어린이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음이 밝혀

졌다. 자아개념과 관련해서 볼 때 그림에서 자신의 그림이 우월한 위치에 그린 아동이 역시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그들은 자기상과 아버지상과의 거리에 있어서도 훨씬 가깝게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FD는 방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묘화자의 저항을 적게 하면서 가족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지각, 부모 형제를 포함한 가족관계에 대한 인지를 알아 보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진단을 목적으로 할 때 다른 심리검사와 함께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인 해석적 관점은 권기덕 등(1993),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자아 개념(Self-Concept)

자아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Rosenberg(1979), Dickstein(1977), 유기섭(1987) 등은 자아개념을 자신감, 자기신념 즉 자기 효용성이라 하기도 하며, Coopersmith(1974), 황정규(1984) 등은 자기 수용이라 하였으며, Bachman 과 O' Malley(1977)는 능력과 성취감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들에서 자아개념은 자신감, 자기수용, 자기지각, 능력과 성취감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기섭(1987)은 개인에 대한 신념을 자아개념이라 하였는데 이 신념은 경험을 통하여 발달하므로 자아개념은 신념과 경험의 복합적 개념이며 동시에 심리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즉, 자아개념은 이상적 자아에 토대를 두고 현실적 자아를 갖게 되며, 그 다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비교 평가하여 지각의 총체를 이루어 이것이 자기 태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자기 태도는 개인의 인지력에 의한 것으로 적절한 태도(자기존

중감)와 부적절한 태도(자기부정감)을 갖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아개념이란 자아에 대한 지각, 신념 그리고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의해 태도를 갖게 되고 이때 태도는 양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발달되는데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 Rogers(1952)는 자아개념이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Hurlock(1973)은 자아개념에 미치는 요소로 체격, 신체적 조건, 별명, 지능, 포부 수준, 문화형태, 학교, 사회적 지위, 가족적 지위를 들었다. 그 중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태도, 신뢰, 가족간의 갈등, 가족수, 출생 순위 등에 의해 자아개념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Anastasi(1973)가 지적했듯이 가족 환경에서도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이 더욱더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발달된 자아개념은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Rogers(1965)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적응력이 좋고 성공에 대해 확신을 가지므로 근심이나 걱정이 적은 반면, 부정적 자아개념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불확신감을 가지며 실패를 두려워 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지니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변명할 구실을 찾는다(고병채, 1989).

정원식(1968)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면 자기 가치에 대한 회의를 느껴 무가치한 인물로 생각하여 종종 우울하고 불행스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 자아개념은 성격의 중요부분을 형성하며 개인생활 및 대인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정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아개념의 형성 및 발달과정에 있어서 가족 환경의 영향은 지대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태도로 보고 자아긍정감과 자아부정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아개념을 가정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개념을 포함시켜 전체 자아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가정적 자아개념은 가족에 대한 자부심, 인정, 행복감,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은 동료간의 친밀도, 인기정도, 원만함 등이 포함된다. 학문적 자아개념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 성취도,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KFD가 주관적이긴 하나 개인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나타낸다고 볼 때 이들 자아개념과 연관성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KFD와 자아개념간의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에 O'Brien과 Patton(1974)의 연구에서 Coopersmith의 SEI를 사용하여 자아개념을 예측하는 KFD 변인을 추출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아버지상의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아개념이 낮았으며, 아버지상이 자기상을 바라볼 때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수가 많을수록 학구적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KFD와 자아개념의 어떤 변인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부산시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 각각 300명씩 무선 표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중학생을 표집한 이유는 이들이 가족에서 부

모라는 의미있는 타인에게 아직 의존해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사춘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서도 유아기 이후 계속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질문지와 KFD의 체점과정에서 기제가 누락된 73명을 제외한 527명이었다.

조사 도구

조사도구로는 KFD를 위한 A4용지와 자아개념 질문지였다.

원래 KFD를 그리기 위한 용지는 제한을 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A4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용지를 준비하고 연필과 지우개는 학생들이 소유한 것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그림에 대한 지시는 Burns와 Kaufman(1970, 1972)에 의하였다. 즉,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만화나 막 대기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그려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이다. 연구에 사용된 KFD 변인은 Burns의 5개 차원 중 행위 차원의 8개 하위변인, 역동성 차원의 4개 하위변인, 양식 차원의 7개 하위변인을 포함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2개 변인 즉, 인물상의 특징 차원이나 상징 차원은 인물화나 K-HTP 등에서도 분석 가능하고 보다 개별적인 임상적 해석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3개 차원을 선택한 것이다. 각 하위변인의 척도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기 다르다. 각각의 척도 구성은 결과의 표 1,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KFD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체점자간 일치도를 구하는 방식(Cummings, 1980)을 취했다. 체

점자는 본 연구자 2명이며, 연구 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채점하였다. 그 결과 총 19개 변인의 일치도는 66.7%~100%였으며 전체 평균값은 87.5%이었다. 채점자간 일치도가 가장 낮은 변인은 우월성 변인이었고, 가장 높은 변인은 선구분, 하부의 선, 상부의 선, 조감도 변인 등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변인이었다.

자아개념 검사는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의 일부와 고병채(1989)가 여러 학자들의 자아개념 검사를 청소년에게 맞게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요인 분석에 의해 선정된 총 문항수는 15문항으로 여기에는 가정적 자아개념 5문항, 사회적 자아개념 4문항, 학문적 자아개념 6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아주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점수가 높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0$ 이었다.

자료 및 처리 방법

자료의 처리 방법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KFD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남녀간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KFD의 하위변인들과 자아개념간의 상관성을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1. 중학생의 KFD 반응특성

그림에 나타난 가족 모두에 대한 분석은 번거로움과 복잡함을 더한다고 판단하고,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므로 자

기상과 부모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FD의 차원도 원래 5개 차원으로 구성(Burns 과 Kaufman, 1970)되어 있으나 본 연구자는 행위(Actions), 역동성(Dynamics), 양식(Styles) 차원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표 1, 표 2, 표 3은 중학생의 KFD 반응특성을 행위 차원, 역동성 차원, 양식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의 하위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것이다. 각 인물상의 사례수가 다른 것은 전체 527명 중 자기상을 생략한 자가 29명(5.5%), 어머니상을 생략한 경우가 46명(8.7%) 아버지상을 생략한 경우가 43명(8.1%)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의 5% 이상이 자신이나 부모를 그림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가족으로부터 제외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 준다.

표 1. 행위 차원의 반응특성

변인 (척도)	자기상 (N=498)		어머니상 (N=481)		아버지상 (N=484)	
	M	S.D	M	S.D	M	S.D
활동성(0-8)	2.60	1.98	3.62	1.93	2.58	1.93
의사소통정도 (0-6)	0.58	1.32	0.51	1.26	0.59	1.34
협동성(0-4)	0.89	1.49	0.88	1.50	0.89	1.50
피작성(0-8)	0.02	0.19	0.01	0.14	0.03	0.21
자기애(0-5)	0.62	1.38	0.27	1.00	0.28	1.00
양육성(0-7)	0.43	1.18	1.06	1.75	0.38	1.11
가작성(0-8)	0.04	0.40	0.01	0.15	0.01	0.14
긴장감(0-3)	0.07	0.29	0.06	0.27	0.11	0.37

표 1은 행위 차원에 대한 중학생의 KFD 반응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행위 차원은 주로 개인 및 가족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며, 가족간의 협동성이나 양육성, 공격성, 불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활동성은 9점 척도에서 평균점수가 자기상이 2.60, 어머니상이 3.62, 아버지상이 2.58로 나타나 비교적 정적인 활동

KFD의 양식 차원은 가족관계에서 자기의 감정과 상태, 신뢰감을 나타낸다. 양식차원의 모든 하위 변인은 0-4 점 척도에서 채점되었다. 양식 차원의 하위 변인이 나타나는 빈도를 파악한 결과, 자기상의 포위(22.5%), 선 구분(19.8%), 아버지상의 포위(18.9%), 어머니상 포위(11.0%), 아버지상 밑의 선(13.3%), 자기상 밑의 선(10.2%)의 순이었다. 즉, 자기상을 포위하거나 아버지 상을

포위하는 비율이 전체의 1/5 정도가 된다는 것은 해당 인물의 고립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 구분에 의해 가족간의 정서적 단절현상도 역시 전체의 1/5 정도를 보이고 있어 사춘기 중학생들의 독립하고자 하는 정서적 특징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0% 이상이 선 구분이나 인물하선을 대체로 그림에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의 선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하위 변인의 평균점수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2. KFD 반응특성에서의 남녀 차이

표 4, 표 5, 표 6은 KFD 각 차원에서 나타난 특장에서 남녀 차이를 보이는지 T-검증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KFD 반응특성을 알아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녀 학생들의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이 KFD상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남녀의 그림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표 4는 행위 차원의 하위변인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표이다.

활동성에서 어머니상 ($p < .001$) 아버지상($p < .05$)에서 남녀간 유의차를 보였다. 즉 남학생의 그림에서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의 활동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에서는 세 상 모두 ($p < .01$, $p < .05$, $p < .05$) 남녀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이 그림에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협동성에 있어서도 세 상 모두 ($p < .001$, $p < .01$, $p < .001$) 남녀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의 그림에서 가족간의 협동적인 모습이 더 많이

표 4. 행위 차원에서의 남녀 차이

변 인	성 별	자기상(남 : 259, 여 : 239)			어머니상(남 : 253, 여 : 228)			아버지상(남 : 248, 여 : 236)		
		M	S.D	t-value	M	S.D	t-value	M	S.D	t-value
활동성	남	2.47	1.73	-1.50	3.94	1.72	3.83***	2.75	1.84	1.99*
	여	2.74	2.22		3.26	2.09		2.40	2.00	
의사소통 정도	남	0.42	1.14	-2.84**	0.39	1.11	-2.22*	0.45	1.19	-2.20*
	여	0.75	1.47		0.64	1.40		0.72	1.48	
협동성	남	0.58	1.29	-4.63***	0.65	1.35	-3.35**	0.64	1.34	-3.76***
	여	1.19	1.62		1.11	1.62		1.14	1.61	
피확성	남	0.03	0.23	0.87	0.02	0.19	-	0.03	0.24	-0.09
	여	0.01	0.13		0.00	0.00		0.03	0.18	
자기애	남	0.80	1.54	3.18**	0.26	1.00	-0.03	0.31	1.05	0.81
	여	0.41	1.16		0.27	0.99		0.24	0.92	
양육정도	남	0.49	1.28	1.24	1.17	1.82	1.48	0.41	1.20	0.59
	여	0.35	1.07		0.93	1.66		0.35	1.01	
가확성	남	0.54	0.54	1.06	0.01	0.19	0.23	0.02	0.20	-
	여	0.17	0.16		0.01	0.09		0.00	0.00	
긴장감	남	0.04	0.19	-2.67**	0.03	0.23	-2.76**	0.07	0.34	-1.97*
	여	0.11	0.36		0.10	0.31		0.14	0.4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역동성 차원에서 남녀 차이

변 인	성 별	자기상 또는 자기상-어머니상 (남 : 259, 여 : 239)			어머니상 또는 어머니상-아버지상 (남 : 253, 여 : 228)			아버지상 또는 자기상-아버지상 (남 : 248, 여 : 236)		
		M	S.D	t-value	M	S.D	t-value	M	S.D	t-value
우월성	남	3.57	1.00	0.16	4.09	0.91	3.01**	4.15	1.03	2.07**
	여	3.56	1.00		3.83	0.99		3.96	1.05	
장애물수	남	0.83	0.84	1.75	0.90	1.00	2.62**	0.71	0.84	2.97**
	여	0.70	0.88		0.69	0.84		0.51	0.72	
인물상의 방향	남	2.13	0.90	-1.03	2.19	0.85	0.25	2.38	0.79	2.21*
	여	2.21	0.79		2.17	0.76		2.23	0.74	
인물상간의 거리	남	69.69	46.17	2.90**	80.77	51.77	1.64	81.98	76.86	1.66
	여	57.86	40.06		71.76	51.83		71.54	56.09	

* $p < .05$ ** $p < .01$ *** $p < .001$

묘사되었다. 자기애는 자기상($p < .01$)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기애의 표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긴장감은 세 상 모두($p < .01$, $p < .01$, $p < .05$)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부모에게 더욱 더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 차원의 반응특성에서 남녀 차이를 종합해 보면 남학생은 부모를 활동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부모와 자기를 협동적이고 의사소통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긴장감이 있는 부모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특징은, 남학생은 외적으로 나타난 부모를, 여학생은 관계성에 관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는 역동성 차원의 하위변인에서 남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월성 변인은 어머니상($p < .01$)과 아버지상($p < .01$)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을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그려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물 수에서도 어머니상-아버지상($p < .01$), 자기상-아버지상($p < .01$)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장애물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인물상의 방향은 자기상과 어머니상에서 남녀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상($p < .05$)에서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아버지상을 보다 정면에 가깝게 그려 넣고 있었다. 인물상의 거리는 자기상-어머니상간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역동성 차원에 대한 반응특성의 남녀 차이를 종합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 아버지상을 우월하게 여기고 있으나, 장애물 수나 인물상간의 거리에서 보듯이 부부간이나 부자, 모자간에 정서적 거리감이나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동일시에 의한 것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6은 양식차원에서 남녀간 반응특성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양식($p < .001$)과 인물하선($p < .05$) 조감도($p < .01$)변인에서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분양식을 많이 그리는 반면, 여학생이 어머니상을 포위하거나 자기상과 아버지상 밑에서 선을 긋는 행위를 더 많이 하며 새가 공중에서 보듯 그린 조감도 양식도 여학생이 더 많이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간의 독립

표 6. 양식 차원에서의 남녀 차이

전체 : 527명, 남 : 269명, 여 : 258명

변인성별		전체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M	S.D	t-value	M	S.D	t-value	M	S.D	t-value	M	S.D	t-value
구분	남	0.99	1.63	5.26***									
	여	0.36	1.01										
가장자리	남	0.01	0.12	-1.02									
	여	0.03	0.35										
포위	남				0.96	1.71	0.84	0.29	1.04	-2.72*	0.77	1.56	0.27
	여				0.83	1.63		0.58	1.42		0.72	1.55	
하부의선	남	0.00	0.00	-									
	여	0.16	0.77										
상부의선	남	0.00	0.00	-									
	여	0.00	0.00										
인물하선	남				0.29	1.04	-2.21*	0.21	0.89	-1.96	0.40	1.20	-2.24*
	여				0.53	1.36		0.39	1.19		0.67	1.49	
조감도	남	0.03	0.33	-3.33**									
	여	0.23	0.23										

*p<.05 **p<.01 ***p<.001

또는 분리 감정을 더욱 많이 나타내고 있으며 여 학생은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싶은 욕구와 자기와 아버지에게 대한 불안감정, 그리고 현실을 다소 왜곡하여 인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가족간의 분리감정을 나타내는 데 남학생은 구분양식으로, 여학생은 포위나 인물하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5, 6의 KFD상의 남녀차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남학생은 스스로 자기중심적이면서 부모는 대외적이고 표면적인 모습만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가족내의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부모나 자신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정서를 보이고 있다.

3. KFD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표 7, 표 8, 표 9는 KFD의 3개 차원과 중학생의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KFD가 묘화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족인지를 나타내는 투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각 가족성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O'Brien과 Patton(1974)의 연구에서도 부모상이 자아개념과 관련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표 7은 KFD 행위 차원의 하위 변인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은 의사소통정도, 협동성, 양육성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상(p<.05)과 아버지상(p<.05)의 의사소통 정도와 가정적 자아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어머니상(p<.01)과 아버지상(p<.05)의 의사소통 정도가 학문적 자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체 자아개념과 어머니상(p<.01)과 아버지상(p<.05)의 의사소통 정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행위 차원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변 인	자 아 개 념											
	가정적 자아 개념			사회적 자아 개념			학문적 자아 개념			전체 자아 개념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활동성	0.027	-0.040	0.046	-0.042	0.039	0.066	-0.042	-0.008	-0.006	-0.015	-0.011	0.041
의사소통 정도	0.910*	0.073	0.107*	-0.023	0.031	-0.009	-0.035	0.148*	0.097*	0.054	0.121**	0.099*
협동성	0.178***	0.177***	0.191***	-0.034	0.006	-0.024	0.046	0.077	0.081*	0.098*	0.123**	0.126***
피학성	0.021	0.055	0.005	0.062	0.070	0.016	-0.031	0.013	-0.046	0.014	0.056	-0.016
자기애	-0.001	0.012	0.014	0.008	-0.034	0.009	0.101*	0.034	0.032	0.055	0.012	0.026
양육성	0.014	0.019	0.044	-0.076	-0.011	-0.076	0.042	0.116**	0.061	0.003	0.066	0.027
가학성	0.043	0.066	-0.008	0.044	0.058	0.051	-0.046	0.002	0.028	0.011	0.050	0.028
긴장감	-0.014	-0.040	-0.033	0.064	-0.022	0.005	-0.043	-0.014	0.007	-0.051	0.033	-0.018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역동성 차원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변 인	자 아 개 념											
	가정적 자아 개념			사회적 자아 개념			학문적 자아 개념			전체적 자아 개념		
	자기상 or S-M	어머니상 or M-D	아버지상 or S-D	자기상 or S-M	어머니상 or M-D	아버지상 or S-D	자기상 or S-M	어머니상 or M-D	아버지상 or S-D	자기상 or S-M	어머니상 or M-D	아버지상 or S-D
우월성	0.095	-0.001	-0.014	0.098*	0.030	0.044	0.031	-0.035	-0.016	0.093*	-0.009	-0.001
장애물 수	0.026	-0.037	-0.053	0.049	0.048	0.034	-0.59	-0.027	-0.040	0.001	-0.033	-0.029
인물상의 방향	0.075	0.066	-0.003	0.014	0.085*	0.062	0.040	-0.020	0.091*	0.062	0.070	0.066
인물상간 의 거리	0.030	-0.091*	-0.010	0.011	0.022	-0.081	-0.095*	-0.050	-0.072	-0.060	-0.063	-0.068

* $p < .05$ ** $p < .01$ *** $p < .001$

◎ S-M : 자기상-어머니상 M-D : 어머니상-아버지상 S-D : 자기상-아버지상

협동성에서 세 상 모두 ($p < .001$)에서 가정적 자아, 전체적 자아($p < .05$, $p < .01$)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아버지상($p < .05$)의 협동성이 학문적 자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밖에 자기상($p < .05$)의 자기애적인 표현과 학문적 자아간에 정적 상관을, 어머니상($p < .01$)의 양육성이 학문적 자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위차원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물상간의 의사

소통 정도가 개방적이고 행위가 협동적일수록 가정적 자아개념이나 학문적 자아개념이 높고, 전체 자아개념도 높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기애가 높고 어머니를 양육적으로 인지하는 학생들이 학문적인 부분에서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역동성 차원의 하위변인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아개념과 관계성을

보인 변인들은 우월성, 인물상간의 방향, 인물상간의 거리이다. 자기상($p<.05$)의 우월성이 사회적 자아와 전체적 자아개념에 정적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상-아버지상($p<.05$)과 아버지상($p<.05$)의 인물상의 방향이 각각 사회적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어머니상-아버지상($p<.05$)간의 거리는 가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상-어머니상($p<.05$)간의 거리는 학문적 자아개념과 부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거리가 멀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을 나타내었다. 이는 O'Brain과 Patton(1974)의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상의 방향이 사회적 동료적 자아개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역동성 차원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신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 학생이 사회적자아나 전체자아에서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긍정적 인지는 곧 긍정적인 사회적 학문적 자아감을 갖는 것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가지는 학생들은 가정적 자아감이나 학문적 자아감에서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는 양식 차원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아개념과 관련성을 보인 변인은 구

분과 인물하선이었다. 구분양식($p<.05$)은 학문적 자아에서 부적상관을 보여 구분양식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학문적 자아개념은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물하선에서는 어머니상 밑의 선($p<.01$)과 아버지상 밑의 선($p<.001$)이 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적상관을 보여 어머니와 아버지상 밑의 선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학문적 자아개념과 전체 자아개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가족간의 분리감정을 구분이나 포위, 인물하선으로 주로 표현(표 3)했기 때문에 자아개념과의 관련성도 이들 영역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양식 차원의 결과를 요약하면 구분과 인물하선이 학문적 자아개념과 전체적 자아개념에 관련성이 있으며 특이한 것은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에 대한 긴장이나 불안감은 오히려 학문적 영역에서 더욱 긍정적 자아개념과 연관이 있었다. 이것은 Burn과 Kaufman(1980)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인데 아마도 어떤 다른 변인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자는 이를 학문 중시의 한국실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문적 기대가 자녀에게는 긴장을 유발하면서도 더욱 열심히 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9. 양식 차원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변 인	자 아 개 념											
	가정적 자아 개념			사회적 자아 개념			학문적 자아 개념			전체적 자아 개념		
	전체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전체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전체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전체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구 분	-0.043			0.079			-0.098*			-0.047		
가장자리	0.054			-0.003			-0.023			-0.013		
포 위	0.067	0.001	-0.030	0.031	-0.031	0.007	0.048	-0.018	0.012	0.067	-0.019	-0.006
하부의 선	-0.023			-0.035			0.071			0.015		
상부의 선	-			-			-			-		
인물하선	-0.009	0.069	-0.042	-0.031	0.040	-0.005	0.060	0.128**	0.168***	0.018	0.116**	0.067
조감도	0.018			-0.045			0.033			0.011		

* $p<.05$ ** $p<.01$ *** $p<.00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KFD 반응특성을 행위차원, 역동성 차원, 양식 차원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행위 차원에서 중학생들은 자기 뿐 아니라 부모상을 비교적 비활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나 협동성이 적었으며, 공격적인 성향도 거의 없을 뿐더러 양육적인 면도 적게 나타났다.

역동성 차원에서 중학생들은 자기상과 부모상을 용지의 중간 부분에 적절히 배치하고 있으며, 자기와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를 하는 편이었으며 부모와 자기상간의 거리를 평균적으로 70mm정도 두고 있었다.

양식 차원에서 중학생들은 전체의 1/5 정도가 선 구분과 포위 형태를, 인물화선은 10% 이상 나타나 사춘기 청소년들의 분리 독립 욕구를 보였다.

둘째, 중학생의 KFD 반응특성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그 결과를 3개 차원에서 요약해 보면, 행위 차원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기상과 부모상 모두 활동적이며, 자기애적인 표현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자기상과 부모상 모두 협동적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지만 부모상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긴장감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동성 차원에서는 남학생이 어머니, 아버지를 우월하게 인지하고 특히 아버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보이고 있었다.

양식 차원에서는 남학생이 가족원과의 분리 감정을 더욱 느끼고 있으며, 여학생은 자기와 아버지에 대한 불안 감정과 현실 왜곡적인 면을 보였다.

셋째, KFD 반응특성과 자아개념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정적 자아개념과 관련을 보인 KFD 변인은 가족원의 협동성, 부모상간의 거리였다.

사회적 자아개념과 관련을 보인 KFD 변인은 자기상의 우월성, 어머니상의 방향이었고, 학문적 자아개념과 관련을 보인 변인은 부모상의 의사소통정도, 아버지상의 협동성, 자기상의 자기애, 어머니상의 양육성, 아버지상의 방향, 자기-어머니상의 거리, 구분, 부모상의 인물화선이었다.

전체자아개념과 관련을 보인 변인은 부모상의 의사소통 정도, 협동성, 자기상의 우월성, 어머니상의 인물화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문적 자아개념과 관련성을 보인 KFD 변인들이 많은 것은 학업적 능력이 사회적 인정을 얻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적 양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중학생으로 한정된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술한 결론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KFD의 집단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몇 가지의 임상적 변인에 대한 특징을 밝혔을 뿐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그림을 해석할 때는 모든 변인들을 종합한 전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춘기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나타난 KFD의 특징을 조사하여 개인이나 가족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연옥, 양익홍, 김중술 및 홍강의(1985). 국민학교 아동의 운동성 가족화 검사반응. 서울의대 정신의학. 제10권 2호, 158-172.
- 권기덕과 김동연 및 최외선(1993).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특수교육.

- 고병채(1989). 자아개념의 개념정립과 자아개념 검사구성. *학생생활연구*, 제8집, 군산대 학생생활연구소.
- 김동연(1991). 가족화를 통한 심리치료 소고. *발달장애연구*. 제5권 제1호, 20-31.
- 박혜련(1992). 행동장애 청소년의 운동성가족화 검사 반응특성.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서봉연(1975).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기섭(1987). 선정된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중앙대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4, 3.
- 이영석(1994). 동적가족화(KFD)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정원식(1968) 자아개념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최외선(1995). 한국아동과 한국계 미국아동의 자아개념과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역동성과의 비교문화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2권 제1호, 1-17.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황정규(1984).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加藤孝正(1977). 動的家族描畫と 家族像への態度との 關聯性. *藝術療法*, 8, 33-38.
- 加藤孝正と 清水敏子(1978). 動的家族描畫における 行爲と家族像への態度. *藝術療法*, 9, 25-32.
- 日比裕泰(1985). *動的家族描畫法(K-F-D)*.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 Bachman, J. G. & O'Mally, P. M.(1977). Self-esteem in Young me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al occupational attainmen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65-380.
- Brown, T. R.(1977). KFD in evaluating foster home care. Olympia, Washington: Office of Research State of Washington, Dep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 Bugess, E. W. & Locke, H. J.(1971). *The Family*. Van Nostrand Reinhold Co.
- Burns, R. C.(1982). *Self-Growth in Families: Kinetic Family Drawings (K-F-D).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Brunner/Mazel.
- Burns, R. C. & Kaufman, S. H.(1970). *Kinetic Family Drawing (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s*. New York: Brunner/Mazel.
- Burns, R. C. & Kaufman, S. H.(1972). *Action,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K-F-D)*. New York: Brunner/Mazel.
- Conant, M. S.(1988). Toward the Validation of the Kinetic Family Draw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delphi University.
- Cho, M. M.(1987). The validity of the Kinetic Family Drawing as a measure of Self-Concep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mong Chinese children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 Coopersmith, S.(1959). A method for determining types of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vol. 59, 87-88.
- Cummings, J. A.(1980). An evaluation of objective scoring system for Kinetic Family Drawings(KF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Univ.
- Dickstein, E.(1977). Self and self-esteem. Theoretical found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Human Development*, 20,

- 129-140.
- Erikson, E. H. (1968). *Identity-Youth and Crisis*. N.Y. : Norton.
- Freeman, H. (1971). What a child's drawings can reveal. *Mother*. London, 35 : 34-36.
- Freud, S. (1964). Analysis of Phobia in a Five-Year Old Boy. *The Complete Works of Sigmund Freud*. J. Strachey, London : Hogarth Press
- Heineman, T. (1975). Kinetic Family Drawings of siblings of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Thesis Abstracts. School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Hulse, W. C. (1951).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draws his family. *Quarterly Journal of child Behavior*, 3.
- Hulse, W. C. (1952). Childhood conflict expressed through family drawings.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16, 66-79.
- Hurlock, E. B. (1973). Adolescent Development, Tokyo : McGraw-Hill Kogakusha Ltd., 325-335.
- Johnston, D. D. (1975). Comparison of KFD in Children from Intact and divorced homes. Unpublished thesis Dissertation Abstract. Calif. State Univ., San Jose.
- Knoff, H. M. & Prout, H. T. (1988). *Kinet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 A Handbook*. L.A. : WPS.
- Landmark, M. (1975). *Personal communication*. Institute of Psychology, University of Oslo, Norway.
- Lieberman, F. B. (1992). Validity of the Kinetic Family Drawings as A measurement of the percep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y Dynamics (parental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ce University.
- McGregor, J. P. (1978). Kinetic Family Drawing Test : A validity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ntucky University.
- McPhee, I. P. & Wegner, K. W. (1976). Kinetic Family Drawing styles emotionally disturbed childhoo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487-491.
- O'Brien, R. O. & Patton, W. F. (1974). Development of an object scoring method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156-164.
- Rogers, C. R. (1952).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136-137.
- Rosenzweig, M. R. & Porter, L. W. (1976).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alo Alto, CA : Annual Reviews, Inc. vol. 27, 560.
- Roth, J. W. & Huber, B. L. (1979). Kinetic family drawings. *Familien Dynamik*, 1979, Sonderdruck. Stuttgart : Klett-Cotta.
- SchorNSTein, H. M. (1977). KFD assessment of how abused children are regarded by their parents, *Child Protection Report*. Vol. III, No. 1.
- SchorNSTein, H. M. & Derr, J. (1977). The many applications of Kinetic Family Drawings in child abu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June.
- Shaw, J. G. (1989). A Developmental Study on the Kinetic Family Drawing for a Nonclinic, Black Child Population in the Midwestern region of the United States. Thesis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 Sobel, H. & Sobel, W. (1976). Discriminating

- adolescent male delinquents through the use of Kinetic Family Drawings, *Journal Personality Assessment*, 40, 91-94.
- Souza de Joode, M.(1976). O desenho cinetico da familia(KFD) como instrumento de diagnostico da dinamica do relacionamento familiar. *Auquivos Brasileiros de Psicologia Aplicada*, 29(2), 149-162, Abr /Jun, Rio de Janeiro, Brazil.
- Thompson, P. L.(1975). Kinetic Family Drawing of Adolescents. Doctori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San Francisco, Californ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e of Kinetic Family Drawing(KFD) and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Lee, Young Suk · Choi, Wae Su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Kinetic Family Drawing(KFD) is projective diagnosis method to test personality and family dynamics. It is useful to know the personal psychological trend of the fami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KFD responses and the difference by sex, to identify relations between KFD responses and self-concept.

The 527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both sexes, in the city of Pusan. Mean, S. D. , T-test, correlation were employed to analyze data collected by instrum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he characteristics of KFD, their drawing expressed in-active tendency of families and low leveled communication or cooperation, more individual action.
2. In the difference by sex, while males were more active, females were more cooperative and communicative. While males perceived positive but draw distant themselves from parents, females represented more tension to parents.
3. In the relation to KFD and Self-Concept, more open communicative, cooperate, narcissistic, nurturant cases were related to positive self-concept.

Key Words : KFD · Actions · Dynamics · Styles · Self-Concept